

## 왜 홀로코스트인가?

이번 월요일(4/12)은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일입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 이런 반발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홀로코스트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우주적 범죄** -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악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지속되는 것은 인류의 죄악과 순종에 대한 거부 때문입니다 (창 3).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들 탓입니다. 예수아께서는 빌라도에 의해 사형된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13:1-5).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선하지” 않으며, 더 나은 윤리적 상태로 진화해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범죄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인간이 죄를 지어 회개와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성경적 견해를 보여주는 굉장한 증거입니다.
- 2. 유대인들의 범죄** - 놀랍게도, 홀로코스트 사건은 이미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 26:33, 38 와 신 28:63-64 은 유대 민족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날 추방과 끔찍한 고통에 대해 말씀합니다.
- 3. 이방인들의 범죄** - 유대 민족의 추방과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의 벌로부터 보는 한편, 홀로코스트나 다른 많은 반유대적 사건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해 유대 민족을 열방의 민족 가운데 흘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저희 민족을 대하는 방식은 그들의 죄성이었습니다. 속 1:15 -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의 죄를 인해 그들을 추방시키셨던 것보다도 이방 민족들의 반유대주의를 인하여 더 화가 나셨습니다.
- 4. 대체 신학** - 롬 11 장은 유대 민족이 선택 받은 민족으로서의 운명을 계속 띤다고 말씀합니다. 중세의 카톨릭과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 모두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유대 민족이 선택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함으로 인해, 기독교 국가들에서 반유대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배척하지만, 대체 신학의 오류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홀로코스트 기간 중에 잠잠히 있었고 심지어 나치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 5. 메시아 거부** - 메시아의 오신 것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복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수아를 거부한 것은 그 복의 대부분을 저주로 바꿨습니다. 눅 19:44 -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실상 스스로를 저주한 것입니다. (마 27:25).
- 6. 랍비들의 시온주의 거부** - 현대 시온주의에 따른 최초의 알리야(이민의 물결)는 1881 년, 홀로코스트보다 거의 60 년이 앞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유럽의 위험 지역을 떠나 아메리카나 이스라엘로 가도록 유대 민족을 부르시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동유럽의 랍비 지도층이 극단적으로 시온주의를 반대하며 거짓 메시아 운동이라 치부하고, 사람들에게 따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수 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남겨져 죽게 되었습니다.

7. **인본주의자들의 시온주의 거부** - 테오도르 헤르츨<sup>1</sup>은 1897년에 유대 국가에 대한 설파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알프레드 드레퓌스<sup>2</sup> 사건을 통해 반유대주의를 목도한 이후였습니다. 서구의 많은 자유주의 유대인들은 아메리카나 이스라엘로 옮겼다면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른 것은 부에 사로잡히고 자유-세속적 인본주의의 거짓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임박한 위험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슬람 지하드의 유대 국가에 대한 신 홀로코스트로부터 기본적 방어를 하겠다는 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8. **의인의 고통** - 어느 세대에서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다. 사회가 청렴의 가치를 지켜가는 만큼 의인들이 보상 받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가 윤리적 가치를 상실한 만큼 의인들이 고통 받을 것입니다. **딤후 3:12 -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의인들은 가인과 아벨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족장들, 또한 오늘날 무슬림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고통 받아오고 있습니다. 모택동<sup>3</sup> 치하의 공산 중국은 나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터키는 아르메니아 ‘홀로코스트’를 통해 수없이 많은 이들을 학살했습니다.
9. **선민의 고난** - 메시아 예슈아의 십자가와 선민인 유대인들의 고난 사이에는 신비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저희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예슈아를 거부하긴 했지만, 우리가 다른 면에서 받을 수 있는 계시는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 **눅 19:42**. 추방은 형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 **롬 11:11**. 유대 민족의 추방과 고난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속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고난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골 1:24**).
10. **재림을 막으려는 사탄** -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멸할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창 3:15**). 그 씨는 예슈아였습니다. 그 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창 22:18**).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들(예컨대 바로, 하만, 헤롯)은 늘 유대 민족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이러한 공격들은 예슈아께서 태어나셨을 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예슈아께서는 그 약속을 초림 뿐 아니라 재림까지 아우르도록 확장하셨습니다. **마 23:39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홀로코스트와 이슬람 지하드는 유대 민족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메시아를 이 땅에 돌아오시게(그러면 마귀는 옥에 갇힐 것 [**계 20:2**]) 하는 사명을 막으려는 사탄의 시도입니다.